



농림부 장관 박홍수

# 양록인과 함께 한국 농업의 새 모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06년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뜻하는 바대로 큰 수확을 거두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謹  
賀  
新  
賀

먼저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 전 대설로 인해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을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피해가 조기에 복구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을유년은 우리 농업·농촌에 있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일들을 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50년 만에 양정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제도 개편으로 인한 파장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점도 다소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쌀값 지지를 위한 수매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서, 직불 제를 통해 농가 소득을 지지하면서 일정물량을 공공 비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했었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은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본격

적으로 시작된 첫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위원회를 만들어 농산어촌을 국민의 20% 이상이 거주하는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생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09년까지 약 20조원을 투융자하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을 도시와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도시와 농촌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과 기업체 간의 1사1촌 자매결연은 이미 8천건을 넘어섰고, 농촌을 농촌다움을 지닌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1차로 36개 권역에서 착수된 바 있습니다. 연체로 인해 금융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돕기 위한 농지은행 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연체농가가 돈을 갚지 못하여 농지 등 담보부동산이 법원 경매로 처리되면 정상가에 훨씬 못미치는 금

액으로 팔리게 되지만, 농지은행을 통해 정상가로 팔아서 빚을 갚고 농지은행으로부터 그 농지를 다시 임대받아 영농을 계속하면서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금년에도 정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금년 4월까지 세부원칙을 마련하고 7월말까지 각국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난 홍콩각료회의에서 향후 일정이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일정대로 쉽게 진행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부는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DDA 협상과정은 물론 이후 우리 농업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사전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쌀 협상 국회비준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정부는 금년 2월에 쌀과수대책을 중심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금년 한해 DDA 이후에 대비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재점검 작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농업인 단체와의 끊임 없는 대화도 진행될 것입니다.

어떤 정책보다, 어떤 자원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농업의 인적자원에 대한 정책입니다. 농업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현장위주 전문기술·경영기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전문교육 방식으로 전환하고, 우수 성공사례를 발굴해서 다른 농업인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이제 자신감을 가집시다. 용기를 냅시다. 변화된 현실에 대한 이해 속에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열어갑시다. 우리 앞에 농업·농촌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1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우리 농업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인도 세계 최고 농사꾼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농업도 세계 최강의 농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감과 용기입니다. 그리고 신뢰입니다.

시장 개방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농업인들도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아 나갑시다. 우리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산물이 세계 최고 품질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심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농업의 희망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이 길이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우리 농업·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정부가, 그리고 든든한 우리 국민들의 성원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우리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길. 세계 최고의 농업·농촌으로 가는 그 첫걸음을 올해부터 한발 한발 내딛어 갑시다.